

VOGUE

KOREA

보그 한국판
N O V
2 0 0 0
통권 52 호
임시 특가
6,800 원

구겐하임에서 전시회 갖는
조르지오 아르마니

뉴욕, 파리, 런던을 휩쓸고 있는
오리지널 빈티지 패션

Fashion Forever

모피 코트와
모피 액세서리

fur festival

ISSN 1228-1166



11
9 771228 116002



할리우드의
새로운 글래머 스타
샤를리즈 테론

엄정화, 이정현,
김현정, 박지윤, 이혜영의
이미지 메이킹

SING & STYLING

PLUS
이동건, 김하늘, 최정화

금메달과 은메달사이

밤 11시의 유혹

11월호 별책부록
2001 VOGUE DIARY



9월 29일 청담동에 오픈한 뉴 컨셉 스토어는 4층 규모(총 2,075 평 방미터)의 대형 빌딩으로 루이 비통 파리 스토어 프로젝트 팀에 의해 디자인되었다.

루이 비통 코리아의 조현욱 지사장은 글로벌 스토어의 오픈과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마케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한다. "잘 아시다시피 루이 비통은 전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입니다. 그 전통에 모던함이 더해지면서 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마크 제이콥스가 레디 투 웨어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루이 비통은 어머니와 딸이 함께 쇼핑하는 브랜드가 되었고, 이제 루이 비통은 세대를 뛰어넘는 진짜 트렌디한 브랜드가 되었지요. 루이 비통이 한국에서 사랑받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브랜드보다 긴 웨이팅 리스트가 있을 정도로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답게 좀더 앞선 마케팅 전략과 트렌디한 제품들로 보답하겠습니다."

special event

루이 비통은 글로벌 스토어 오픈을 기념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솔 오픈에 앞서 루이 비통 스태프들은 한국식으로 고사를 지냈다. 외국 지사장들이 고사상에 절을 하고 술잔을 올리는 이색적인 풍경과 함께 선보인 풀물파의 공연과 북춤은 오픈 행사에 참석한 외국 VIP와 프레스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루이 비통은 행사에 그 나라의 전통 문화를 믹스하는 것을 좋아한다. 무엇보다 루이 비통의 2000 F/W 컬렉션 의상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을 위해 이날 루이 비통 측은 솔과 파티장에서 마네킹 쇼를 각각 세 차례나 선보이기도 했다. 밤 11시가 넘어 파티장에서의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자, 루이 비통 측은 파티에 온 사람들을 위해 또하나의 하든 카드를 내밀었다. 한국에서는 쉽사리 볼 수 없는 흑인 아카펠라 그룹(사우스 텍사스 휴스턴에서 낳아온)의 공연과 컬러풀한 플리츠 의상을 입은 곡예사들의 라이브 공연, 흑인 댄서들의 섹시한 스트립 쇼 등이 펼쳐진 것. 이 특별한 프로그램은 그 동안 해외에서 열렸던 루이 비통의 여러 행사에서도 볼 수 있었던 이벤트로 이날 파티의 분위기를 절정으로 치닫게 했다.

루이 비통이 2000 F/W 레디 투 웨어 컬렉션 런칭과 함께 청담동 패션 거리에 국내 최초의 뉴 컨셉 스토어를 오픈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런칭 파티로 화제가 된, 루이 비통 글로벌 스토어 오픈 파티.

bravo vuitton!

open shops 9월 29일 pm 2:30, 1년여 넘게 갈색 LV 로고 장막 속에 감춰진 채로 루이 비통 마니아들의 애를 태우던 뉴 컨셉 스토어가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서 5 번째로(한국에선 13번째) 오픈한 이 글로벌 스토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대형 스토어로 그 규모나 인테리어 면에서 파리 스토어에 뒤지지 않을 만큼 '멋지고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파리의 루이 비통 스토어 프로젝트 팀이 직접 인테리어를 맡은 글로벌 스토어는 남성용 제품으로 구성된 1층과 여성용 제품과 트래블 라인으로 구성된 지하 1층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통적인 루이 비통 컨셉에 모던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추가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공간이다.

이번 루이 비통의 글로벌 스토어 오픈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글로벌 스토어를 오픈할 만큼 우리 나라 패션 마켓이 인터내셔널화됐다는 점이고(루이 비통 본사에서 직접 대지를 구입하고 빌딩을 건축할 만큼), 둘째는 그 동안 글로벌 스토어가 없다는 이유로(글로벌 스토어는 트렌디한 신상품이 가장 빨리 공급되는 곳으로 일반 매장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국내에서 만나볼 수 없었던 제품들을 앞으로 매시즌 외국과 동시에 만나볼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레디 투 웨어 런칭과 더불어 이루어진 글로벌 스토어 오픈 행사에는 루이 비통 아시아 퍼시픽 지사장인 위그 윗보엣과 아시아 마케팅 디렉터인 데이빗 아우, 루이 비통 코리아의 조현욱 사장을 비롯해 1천 명이 넘는 국내외 VIP들과 톱스타들, 패션 피플들이 참석해 문전 성시를 이뤘다(특히 밤 9시에 시작된 VIP 행사 때는 청담동 일대의 교통이 마비되고 주차장이 바닥날 정도였다).



party, party!

pm 11:00, 루이 비통 글로벌 스토어를 둘러 본 사람들은 속에서 1백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마련된 파티장(공중으로 쓰아울리는 레이저 빔이 파티장을 금새 알게 하는)으로 이동했다. 손목에 에피 라인으로 만들어진 카키색 가죽 팔찌를 하나씩 낀 사람들은 국내 최초로 시도된 대형 파티장(건물과 주차장을 텐트로 연결해 설치비만도 양대가 들었다)에 잠시 넋을 잃은 듯했다. 파티장은 외부는 물론 내부까지 완벽했다. 스탠딩으로 칵테일 파티를 즐길 수 있게 중앙에 오픈 바를 설치한 거대한 홀과 VIP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시가 바,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만든 스탠드형 소파들, 그리고 뉴욕에서 날아온 DJ가 대기하고 있던 나이트 클럽까지, 모든 것이 멋진 파티를 연출하기에 충분했다. 신라 호텔에서 서빙하는 샴페인을 비롯한 각종 음료와 깔끔한 안주들이 파티기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제공됐고, 파티 사이사이엔 앞서 언급한 특별 이벤트가 순서대로 이어져 파티장의 열기를 뜨겁게 달궜다. 톱스타들과 모델, 디자이너, 에디터, 스타일리스트, 데이크업 아티스트 등은 물론 천 명이 넘는 루이 비통 고객들까지 어우러져 파티는 새벽 4시까지 이어졌다. 다만, 파티가 계속되는 동안 행사 진행요원들은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고 항의하는 주변 주택가와 경찰서, 구청 관계자들을 설득하느라 진땀을 뺏는가 하면, 환기가 되지 않는 공간에서 장시간 파티를 즐긴 탓에 다음 날 목감기와 두통에 시달린 사람들도 꽤 많았다. 하지만, '한국의 루이 비통 마니아들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데이빗 아우의 말처럼 여러가지 이벤트와 댄스 파티가 어우러진, 근래 보기드문 런칭 파티였다.

파티가 남긴 것 떠들썩했던 루이 비통의 런칭 파티는 다음 날 각종 신문과 뉴스의 헤드 라인을 장식했다. 또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IMF 때문에 온 나라가 긴장하고 있는 시점에 루이 비통의 고객인 부유층이 대거 참석한, 사치스러워 보이는 이 파티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언론의 눈에 바람직해 보였을 리 없다. 하지만 패션소나 패션 솔 런칭 파티 같은 패션계 행사가 각 도시마다 최고의 이벤트가 되고 있는 외국의 경우를 보자. 뉴욕만 해도 해마다 브라이언 파크에서 두 번의 컬렉션이 열린다. 이 컬렉션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대의 교통 대란과 공원의 파괴, 기타 여러 가지 잡음을 뉴욕 시와 시민들은 기꺼이 감수하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지난 해에는 맨해튼의 대동맥인 매디슨 애비뉴를 DKNY라는 브랜드의 파티 장소로

내어 주기도 했다. 파리도 마찬가지. 프레타 포르테 기간 중엔 쇼장마다 도로가 막히고 택시 잡기도 불편하지만 불평하는 파리 시민들은 없다. 물론 그 경우는 시 전체의 비즈니스와 직결된 일인이 이 경우와는 다른 점이 있지만. 어쨌든 이번 루이 비통 행사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국내에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솔을 오픈하면서 국내 고객들과 프레스들에게 큰 돈을 들어 제대로 신고식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제껏 그 도시의 고객들을 천

밤 9시 1천여 명의 VIP들과 연예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리본 커팅을 한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파티는 새벽 4시까지 이어진 칵테일 파티와 댄스 파티로 절정을 맞았다.



my favorite item!

루이 비통 스태프들이 뽑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 아이템'

LV Travel Bag 'Pégase' 업무상 파리 출장이 찾은 내게 가장 필요한 아이템이자, 가장 실용적인 아이템. 가장 전통적 이면서도 삶증나지 않는 LV 모노그램으로 된 트래블 백은 하나님 갖고 있을 만한 베스트 아이템. -조현숙(루이 비통 코리아 지사장)

Taiga Pilot Case 'Oural' F/W 신상품으로 다크 그레이 컬러가 새로 선보여질 예정인 타이가 파일럿 케이스. 전통적이면서 모던한 디자인과 실용적인 수납 공간이 매력적이다. -위그 윗보엣(루이 비통 아시아 퍼시픽 지사장)

Mini Monogram Bag 캔버스 천에 블루

톤으로 LV 로고를 새긴 미니 모노그램 핸드백이야말로 나의 아래에게 선물하고 싶은 아이템. -장루카 브로제티(루이 비통 레더굿 부회장)

Taiga Briefcase 각종 서류는 물론 셔츠, 속옷, 여권이나 신문, 하다못해 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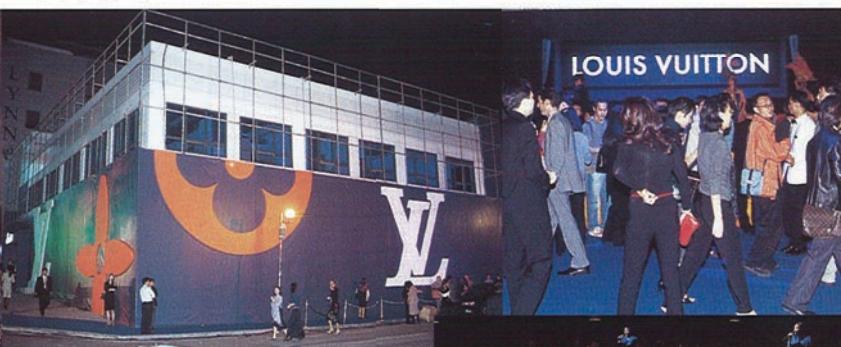
따로따로 보관할 수 있게 수납 공간이 분리된 브리프 케이스. 간단한 비즈니스 출장의 멋진 파트너다. -데이빗 아우(아시아 마케팅 디렉터)

Verni Violet Bag 모노그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베르니 바이올렛 백. 각종 서류는 물론이고 잡지까지 넣을 수 있는 사이즈로 실용적이다. -박주혜(루이 비통 코리아 PR 매니저)

Monogram Glacé Charly Bag 남녀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뉴 모노그램 라인. 어깨에 매는 사각 숄더 백에서부터 실용적인 다이어리, 여성용 물까지 모든 라인 이 모던하고 트렌디하다. 짧은 루이 비통 마니아들에게 권하고 싶은 아이템. -캐시 웨이(아시아 마케팅 어시스턴트)

명이나 불러며 런칭에 이렇게 공을 들인 브랜드는 없었으니 말이다. 시기적으로 따기운 시선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여전히 '패션=사치'라는 공식으로만 이 행사를 지켜보는 시각이야말로 메스가 필요한 부분일지도 모른다. ●

에디터 / 전미경



매장에서 시작된 칵테일 파티는 'Louie's'라고 명명한 파티장에서 댄스 파티로 이어졌다. 5인조 재즈 밴드의 연주와 스파이더 맨 퍼포먼스, 한복을 입고 게스트를 맞이한 리셉션 레이디, 다미에 패턴으로 보디 페인팅을 한 보디 빌더, 'Amazing Grace'를 부른 가스펠 싱어들의 스트립티즈 쇼 등 불거리기 많았는가 하면, 파티장 한쪽에 마련된 나이트 클럽에서는 뉴욕에서 온 DJ가 밤새 멋진 음악으로 파티의 총장을 돌렸다.

PARTY, PARTY

